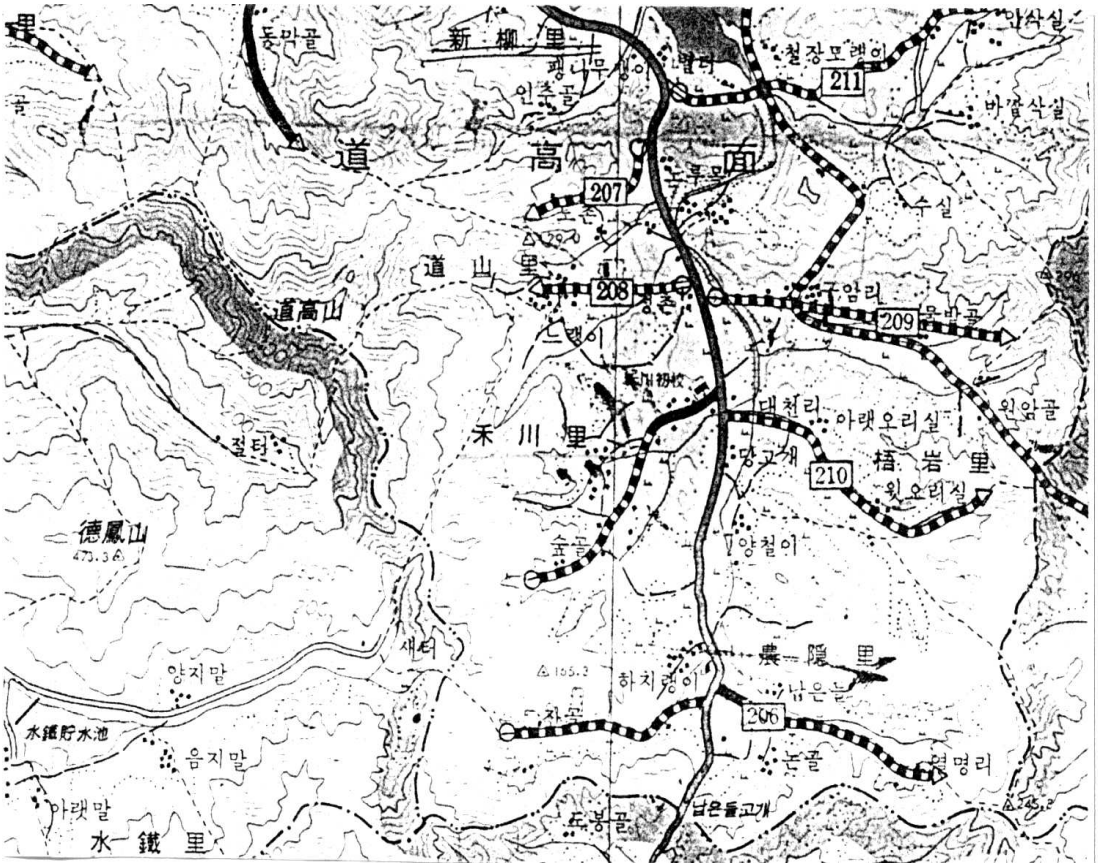
* 마을사 *

화천리·禾川里

화천리는 도고면의 한 마을로서 숫골과 양철이로 나뉘어지며, 화천 1리는 숲이 많아서 숫골이라 불리워졌으며, 화천 2리는 좋은 샘이 많아서 양천리라 하였다 하며, 인구수는 296명으로 총 84호로서 98%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래는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천리, 화동, 당 현리, 판방리 일부를 병합하여 화동과 대천의 이름을 따서 화천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화천리 위치도>



⊠ 숫골, 양철리 마을(화천리)

숫골 마을은 숲이 많아서 숯을 많이 구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숫골 야철지가 있으며, 양천리는 좋은 샘이 많아서 양천이라 불리워 졌으며, 대천리는 앞에 큰 내가 흐르다 하여 대천리라 하고 당고개는 뒷산에 산 제당이 있다하여 불리워졌다 한다.

<조사당시 화천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숫골 마을은 위도 36-43-00 경도 126-55-30 위치해 있으며, 온양온천에서 신창방면으로 국도 21호선을 따라 가다보면 향산리 마을을 지나 좌회전을 하여 국도 645호선을 따라 도고 저수지를 지나 오암리를 지나면 좌측으로 마을이 보인다

양천이 마을은 위도 36-42-50 경도126-55-30 위치해 있으며, 숫골 마을의 마주보고 있는 마을이다.

2) 현 황

숫골 마을은 총 115명으로 남 61명, 여 54명으로 총 37호가 살고 있으며 100% 농업을 생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양천이 마을은 총 181명으로 남 94명, 여 87명으로 총 47호가 살고 있으며 98%가 농사를 짓고 있고 2%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수박과 쪽파를 재배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숫골 마을	115명	61명	54명
양천이 마을	181명	94명	87명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축산업

마 을 명			
숫골 마을	100%	100%	-
양천이 마을	100%	98%	2%

숫골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논 17.1ha, 밭 15.9ha로 나타났으며, 논과 밭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이 갖추어진 마을회관 1개소와 농악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양천이 마을의 농경지를 살펴보면 논 20.5ha, 밭 17ha로 나타났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농기계를 약간씩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고 앰프와 농악기구들을 갖추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숫골 마을	33ha	17.1ha	15.9ha
양천이 마을	37.5ha	20.5ha	17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숫골 마을	1개소	1개소	-
양천이 마을	1개소	1개소	-

숫골 마을은 성씨별 현황을 보면 임씨가 78%로 가장 많고 허씨 3%, 김씨 3%로 나타났으며, 기타 성씨로는 16%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은 골고루 분포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양천이 마을의 성씨별 현황은 김씨 43%로 가장 많고, 이씨 13%, 임씨 6%, 허씨 2%로 나타났으며,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타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임씨	이씨	허씨	조씨	기타성씨
숫골 마을	37호	1호	29호	-	1호	-	6호
양천이 마을	47호	20호	3호	6호	1호	4호	13호

- 최고령자

숫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허영만 할아버지로 92세이며, 양천이 마을의 최고령자는 김 용석으로 89세이다.

3) 자연경관

숫골 마을을 옛날에 숲이 많아 숯을 굽었다하여 유래한 이름에 걸맞에 주위에 주위에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개천을 따라서 약간의 논이 있으며, 숫골 야철지가 마을에 있다.

양천이 마을은 숫골 마을과 도로를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마을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대천이 앞과 양천이 동쪽에 논이 있으며, 마을에 개천이 흐르고 있고, 대천이 북서쪽에 고개가 있는데 옛고분이 발견된다.

4) 마을변천 과정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천리, 화동, 당현리, 판방리 일부를 병합하여 화동과 대천의 이름을 따서 화천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숫골 마을은 서기 1500년경 약 500년전엔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평택 임씨의 집성촌으로 20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양천이 마을은 평택 임씨가 5대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형성년대를 잘 알려지지 않았다.

6) 지 명

十 숫골 마을의 지명

·숫골 : 대천리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마을. 숲이 많아서 숯을 많이 구었다 함.

·숫골야철지 : 숫골 마을에 있으며, 불에 끄을린 소토편과 산화된 철편이 발견됨.

·골무실 : 숫골 남쪽에 있는 들.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함.

十 양천이 마을의 지명

·당고개 : 숫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산제당이 있다 함.

·대천리 : 당현리서 북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큰 내가 흐르고 있음.

·양천리 : 당현 남서쪽에 있는 마을. 좋은 샘이 있음.

·샘내들 : 대천이 북동쪽에 있는 들. 물길이 좋음.

·테일 : 양천이 동쪽에 있는 들.

·두부재고개 : 대천이 북서쪽에 있는 고개. 동으로 뻗는 산자락에 옛고분군이 발견되고 있음.

7) 전 설

十 갈곡 임수겸 선생의 일화

사랑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절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밤 도둑 한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잡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냐 하는 것이었다. 갈곡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 직접 도둑을 만나보기로 했다.

갈곡은 도둑을 만나 무슨일로 하여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느냐 하고 도둑에게 묻자 도둑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아랫마을 사는 가난한 집의 자식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병환이 나셔서 쌀밥과 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하엿서 구할길이 없기에 그만.... 하고는 울기 시작했다.

문득 갈곡은 도둑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 도둑이 돌아간 뒤 갈곡은 하인을 시켜 쌀 몇가마니와 고기를 보내 주었다. 그 뒤 도둑이 찾아와 다시는 도둑질을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숫골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를 하며, 대동계를 음력 10월 말일에 열리고 있으며,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된다.

양천이 마을은 마을 행사로서 정월 대보름에 윷놀이를 하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간의 단합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十 임 수 겸

자는 익지, 호는 갈곡, 태종 9년 기축 10월 18일 전라감사, 성균관 사성, 호조참의, 부제학등 많은 관직을 거쳤다. 이분은 조정에서 호조참의한 벼슬을 하시던 중 아산군 도고면

화천리 1구에 내려오셔서 정자를 짓고 그 곳에서 사시고 계시던 중 임금께서 빨리 조정으로 돌아와 정사를 돌보라는 교지를 말과 함께 보내시었다.

十 임 석 주 (林錫周)

자는 몽뇌요, 호는 매헌이며, 학행으로 유명한 수겸의 후손으로 표저 조익의 문인이다. 문장과 학문이 뛰어나 교관으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인조 초기에 우계와 율곡 두 선생에 대한 문뇨 종향을 앞장서서 제의하여 모든 선비들이 이에 승복하였으며, 학문으로 재당에 천거되었으나 덕을 감추고 나아가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숫골 마을에는 사찰이나 교회가 없다.

양천이 마을에는 화천감리교회가 있고 신도수는 100명이 되고 광명사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수도하는 곳이다.

11) 공장현황

숫골 마을과 양천이 마을에는 공장이 전혀 없는 산골 마을이다.

12) 마을의 특징

숫골 마을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수박, 쪽파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고, 마을에 숲이 많아서 농경지가 적은 편이며, 특징으로는 주민의 대부분이 임씨이며, 마을에 숯골 야적지가 있다. 특히 임 수겸 선생님께서 이곳에 연정(蓮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사신 것을 이곳에 기록한다.

신창현 남상면 (현재 도고면 화천리)에 있는데 성종때에 갈곡 임수겸이 建築하여 여러 영재를 모아 가르치던 강당이다. 1955년 이후 16세손인 임달선이 수차 중수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문을 익힌자들이 科擧에 及第한 사실을 임달선이 提供한 기록을 이용하여 보고자 한다.

「世宗二十九年丁卯文科以師儒累官光廟以遺逸召入內殿咨訪治道成廟十二年丙戌以遺逸大臣咸薦下書徵還咨訪治道公文入代孫光光弼英廟朝文科淸白抄選特除同副承旨光弼子德燦英廟壬牛五月事奉世孫入訣責醫進藥責大臣無文曳出袖絶正廟特贈禮曹判書西囚大提學諡忠獻慮國忘家日忠嚮忠納德日獻光弼號禮梧軒德燦號三好堂」

양천이 마을은 마을 사람들과 서로 단합이 잘되고,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마을이며, 마을 앞에는 들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경관과 따스한 농촌 인심이 넉넉한 마을로서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경지가 적고, 수박과 쪽파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이며, 고령자들이 많은 마을이다.